

사전으로 읽는 218개의 馬 이야기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상징사전 ‘말’ 편 발간

예로부터 말은 인간의 삶과 가까운 동물이었다. 단순한 동물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여러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 백마·천마·용마 등으로 불리며 하늘과 인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존재로 여겨졌고, 생명력과 지혜, 충성의 상징이 돼 왔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아 한국 민속 문화 속 말의 상징과 의미를 정리한 한국민속상징사전 ‘말’ 편을 발간했다.

민속신앙 속 상징부터 유물·회화로 본 의미까지

이번 사전은 우리 일상 곳곳에 남아 있는 말 이야기를 218개 표제어로 정리해, 말에 부여된 상징과 의미를 한 권에 담았다. 말의 생태부터 설화, 신앙, 민속놀이, 교통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흥미로운 자료를 집대성하고 시각 자료를 더해 말의 상징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말’과 ‘마(馬)’가 들어간 표제어가 일상문화 전반에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지 사전 곳곳에서 확인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오늘날 말의 기능은 자동차, 기차로 상당 부분 대체됐지만, 민속신앙에서 말은 여전히 특별한 상징과 의미를 지닌 존재로 전해진다.



곤마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마을신앙에서는 마을의 호환을 막고 수호하기 위해 철로 만든 철마를 봉안하거나 묻었으며, 석마(石馬)를 세워 제사를 지낸다. 무속신앙에서는 천연두를 물리치기 위해 마마신이 말을 타고 집 밖으로 떠나기를 기원하는 마마배송굿을 행했고, 부적에는 악한 기운을 쫓는 신마(神馬)의 형상이 사용됐다. 이러한 표제어는 말이 재앙과 질병을 막는 신성한 매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피맛골, 말죽거리, 마장동 등 말과 연관된 지명의 유래도 수록했다. 말이 교통과 운송, 상업의 핵심 수단으로 생활 공간과 도시 구조 형성에 관여했음을 정리했다. 특히 피맛골은 말을 탄 상층 신분을 피해 형성된 공간으로, 말이 사회적 위계와 권력을 상징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말에 부착된 금속 장치인 박차에서 유래한 ‘박차를 가하다’, 죽마보류에서 전해진 ‘죽마고우’ 등 말과 관련된 관용어의 어원도 소개한다.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지명과 관용어는 말 문화가 현재의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 속 옛사람들의 생활 경험과 인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에는 말띠꾸미개, 말방울, 고삐, 안장 등 말을 관리하고 장식하는데 사용된 다양한 유물을 소개한다. 이러한 유물은 말이 일상생활과 의례, 신분 표현 등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보여준다. 아울러 세마도(細馬圖), 준마도(駿馬圖), 곤마도(昆馬圖) 등 말의 품성과 시대적 상징을 담은 회화자료도 함께 정리했다. 말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상징이 결합되며 회화로 재현됐는데, 곤마도에는 자손 번창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고, 준마도에는 말의 역동성과 기상이 강조됐다. 이러한 자료는 사람들이 말에 부여한 가치와 바람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됐는지 보여준다. 이번 사전은 말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말 문화를 공유해 온 세계 여러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민속상징사전 ‘말’ 편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누리집과 국립민속박물관 누리집에 공개되며 원문 자료도 내려받을 수 있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김유운 저자
유운은 외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골집으로 향한다. 작은 부엌과 낡은 마루를 고쳐 만든 ‘행복과자점’에서 그는 매일 다른 디저트를 굽고, 사람들을 맞이한다. 오지 발령 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공무원 도영, 귀농해 딸기밭을 일구는 은정, 대학원을 그만두고 다시 커피를 선택한 현서, 그리고 언제나 웃고 있지만 속내는 감추는 단골손님 윤오. 서로의 이야기가 디지털처럼 쌓이며 유운의 마음에도 온기가 돌기 시작한다. /한끼·1만7천원



▲황금 새장=가밀라 레크베리 지음, 이상아 옮김
북유럽 범죄소설의 거장 카밀라 레크베리가 이번에는 살인 사건 대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해부한다. ‘황금 새장’은 한 여성의 결혼 생활과 몰락, 그리고 치밀한 재탄생을 그린 심리 스릴러이자 현대적 복수극이다. 작품은 ‘행복한 결혼’이라는 외피 뒤에 숨겨진 권력 관계와 경제적 종속, 감성 노동의 불균형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황금 새장’은 마지막까지 독자를 긴장시키며 묻는다. 누가 진짜 포식자인가. 누가 누구를 이용해 왔는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마르크폴로·1만6천700원



▲폼 이상한 미술 시간=이종원 외 4인 저자
미술의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술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낸 청소년 교양서다. ‘미술이란 도대체 뭐냐?’, ‘명작은 어떻게 탄생할까?’, ‘미술 작품의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나도 미술 할 수 있을까?’ 4부로 구성해 미술을 둘러싼 여러 요소에 관한 다채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수록했다. 현직 미술 교사들이 함께 쓴 이 책은 저자들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학생들의 엉뚱하지만 중요한 질문에 답변하며 미술을 이루는 흥미로운 세계를 탐구한다. /창비·1만8천원



▲내 모자 보았니=신은선 글, 정지윤 그림
엄마, 아빠와 함께 밤을 따라 숲에 간 레미의 하루를 담은 이야기다. 바람에 날아가 버린 모자를 찾기 위해 숲속을 다니며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 서로 돕고 나누는 과정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담았다. 당근을 캐던 토끼, 꿀단지에서 꿀을 모으던 곰, 도토리를 쪼던 다람쥐는 잃어버린 모자를 찾아 나선 레미를 도와줄 뿐 아니라 소중하게 모은 자신들의 먹을거리까지 기꺼이 나눠 준다. 동물 친구들의 도움과 배려를 레미의 모자 찾기를 한층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문학과지식사·1만4천원

부재·상실의 시간을 건너...단편으로 엮은 삶의 기록

송은유 작가 첫 소설집 ‘빛과 결’ 출간

오래전 밀려났다고 믿었던 기억과 한 계절을 건너온 마음의 결들이 조용히 되살아난다. 송은유(사진) 작가의 첫 소설집 ‘빛과 결’(문학들)이 출간됐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이 소설집에 실린 단편들은 ‘오래전 밀려났다고 여겼던 기억의 몇 조각들 혹은 한 계절을 건너온 마음의 어린 결’이다. 잊었다고 믿었고, 말하려다 멈췄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느 날 되살아나 떠오른 감정과 기억들을 문장으로 엮었다. 소설집 속 인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핍 속에 놓여 있다. 부모의 부재, 신체의 훼손, 경제적 빈곤, 정서적 고갈이 반복된다. 그러나 이 결핍은 비극으로 소비되지 않는다. 인물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것을 견디고, 붙잡고, 변형시킨다.



단편 ‘은하’는 죽어가는 어머니와 끝내 그를 마주하지 않으려는 딸의 이야기다. 화해나 용서로 봉합되지 않는 이 관계에는 진폐증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부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의 냉담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햇살과 숨이불로 가득 찬 ‘노란 방’은 은하에게 가장 행복한 낙원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기억으로 남은 공간이다. ‘마주 앉아’에서는 실종된 아버지를 둘러싼 모녀의 시간이 펼쳐진다. 당구장을 꿈꾸다 사라진 아버지의 흔적은 푸른 라사지 천뿐이다. 어머니는 화투 놀이 ‘삼봉’을 반복하며 죄책감

과 기다림을 견디고, 보라는 그 놀이를 한심해하면서도 결국 함께 앉는다. 달빛이 그득한 마루에서 끝없이 화투를 치는 장면은 서글프면서도 고요한 여운을 남긴다. 이밖에도 먹을 갑자기 글씨를 쓰지 않는 아버지의 내면을 살피는 ‘먹을 잇다’, 깨진 다완을 버리지 못하는 이야기 ‘다완’ 등은 부서지고 갈라진 삶의 틈새를 메워가는 시간의 감각을 담아낸다. 작가는 소설 속 결핍을 긍정하거나 낭만화하지 않는다. 대신 ‘그림자 자국을 응시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변형시키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결핍은 동정을 부르는 장치가 아니라, 인물들이 삶을 지속하는 방식이자 감정을 다루는 기술로 제시된다.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소설의 중심에 놓인다. 문순태 소설가는 이 소설집에 대해 “간결하지만 밀도가 높고 내면의 미세한 결을 섬세하게 비춘다. 겉으로 잔잔하지만 안에는 오래 놀러둔 감정의 뿔뿔이 흐른다”고 평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